

MATHETES

특별한 외침

신 윤식

나는 어제 누구로 살았고
오늘은 누구로 사는가

속을 열어 바닥을 보면
무엇이 보일까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지만
드러나는 어제와 오늘의 나

그래도 못들은 척
못 본 척, 아닌 척

숨사탕에 즐거워하고
물거품에 행복해 하는

그 틈에 끼어 어두운 밤 해낼 때
날 찾아 부르는 외침 하나

제22권

38

2014.9.28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아니라

(사 55:8)

은석교회
GOSPEL EUNSEOK CHURCH
www.onlycross.net

담임목사

신 윤 식

시무장로

이영민, 이상희

협동장로

조규연

짐을 서로 지라(갈 6:2)

말씀
묵상



바울은 어떤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6:1절에서 말하는 드러난 범죄의 문제입니다. 이웃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짐을 나의 짐으로 나눠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이다. 이웃의 범죄를 내가 나눠지는 것은 나 또한 이웃과 다를 바 없는 범죄한 자로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자주의 길로 가신 예수님의 은유로부터 나와지는 은유의 마음입니다. 즉 예수님의 은유하심을 아는 신자로부터 짐을 서로 지는 은유의 마음이 나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90년 4월 29일에 대구 신천동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한 은석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뜻의 이름이며 현재 대한예수교장로회 재건총회 동부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은석교회는 교회의 사명이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것에 있음을 알고 사람이 아닌 주를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구리로 38길 7-12 ☎ 421-9049 070-8714-9049 010-5831-9049 sys5806@hanmail.net



부활의 예수님과 제자들

주일오전

눅 24:36-43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그들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생각하기보다는 영, 즉 유령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여 놀라며 무서워합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하시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시면서 영이 아니라 살과 뼈가 있는 실재적 존재임을 확인시켜주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인시키시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본문을 보면서 부활의 상태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육체로 계실 때와 동일하게 만질 수 있는 살과 뼈의 상태인가에 궁금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42,43절에서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고 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하면서 장차 신자도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상태로 부활 하는가에 관심을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심들은 모두 본문의 내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다고 해도 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활한 후에도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든 먹지 않든 신자에게는 부활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에 마음을 집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어떤 상태인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몸을 보이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면서까지 확인시키고자 하신 것도 단지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만져보라고 하시면서까지 확인시켜주시는 것에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부활하시기 전과 전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것처럼 부활 전과 전혀 다른 상태, 즉 광채가 나는 것과 같은 영광된 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라고 말한 것처럼 흠모할만한 모양도 아름다움도 없는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몸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역시 죽을 때의 몸의 상태 그대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다른 의도로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의 상태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지

금의 몸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태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현재 자기 몸에 대한 불만을 부활로나마 해소해보고자 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의 자기 몸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잘 생겼으면, 좀 더 키가 컸으면 하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몸이 아닌 것에 불만이 있습니다.

몸에 대한 불만을 성형 수술이라는 것으로 해결해보려고도 하지만 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결국 자기 몸에 대한 불만을 부활의 몸은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한 몸에 대한 열등감을 해소시키기 위해 다른 장점 같은 것으로 부족함을 대치하여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부활의 몸 또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어서 죽으면 젊은 몸 그대로 부활하는지, 장애인인 장애인 몸 그대로 부활하는지에 궁금증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에 대한 보상이나 보복과는 무관함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만지라고 하시면서 확인시켜주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결국 확인하게 되는 부활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예수님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자들 앞에서 음식을 잡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배가 고파서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신 것이 아니라 죽으시기 전과 전혀 다르지 않으심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믿게 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예전의

환상에 빠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 보복하시거나,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에서 크게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는 보상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으며 그 보상을 현재의 복과 미래에 주어질 천국에서의 상의 차이, 그리고 부활하여 영광을 누리는 것 등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보상일까요? 보상적 의미의 부활이라면 고난의 때와는 다른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난을 받는다고 해도 참으면 이 같은 영광된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에서는 보상적 의미를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고난 없이는 맺어질 수 없는 열매의 의미로 증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모든 신자는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신자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가 자기 영광을 생각하게 되면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볼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부활의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신자가 존재 이유를 자기 영광을 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에 눈이 가리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것에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현실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방향으로 인도 받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고,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부름 받고 쓰임 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선물이라는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인도 받는 길이 고난이라도 해도 그 열매는 영광으로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신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자의 이 길이 하나님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할 때부터 이미 길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나의 길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정해 있다' 는 사실이 포함된 믿음이여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치관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상이 알 수 있고 환호하게 되는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대했던 영광이 세상의 환호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그러한 영광으로 보상받는 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났기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당초 하나님이 말씀은 영광은 전혀 달랐습니다.

행 3:13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입니다.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이 영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길로 가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은 모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이 입으신 영화입니다. 죽은 몸이 다시 살았으니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놀랄 영광의 몸이 아니라 죽을 때의 몸 그대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영광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장한 자기 영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자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심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부름 받았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사도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입니다. 사도들은 고난과 죽음에서도 예수님이 가신 길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도들이 입은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가 인도 받는 영화의 길도 바로 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과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 스스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세상의 반응입니다.

요 12: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에게만 국한된 내용이 아닙니다. 모든 선지자

의 시대에 나타난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지 않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을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사 12:40)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그들 스스로 믿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 일까요?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눈이 가리어져 알아보지 못한 것이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직접 보고도 무서워하고 의심할 뿐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믿는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알고 있는 생각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부인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때문에 유대교 신앙의 전문가들의 미움과 분노를 사고 결국 불들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 보냄 받으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의 전통과 헛된 생각과 욕망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상이고 우상이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오시고 일하시는 메시아였을 뿐입니다. 이 생각이 무너졌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했는지, 그 내막을 알게 된 것입니다.

2014-38 마데테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증인으로 남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신자가 추구해야 할 남은 삶의 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력한 우리를 생명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를 생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있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고 찬송하는 것에 그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행함을 동원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기 있는 믿음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된다고 유혹했습니다. 유혹에 빠진 하와에게 선악과나무는 예전과는 달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는 자신을 가지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이 탐스럽게 다가옵니다. 행함 역시 자신을 가지 있는 신자로 만들어 줄 도구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알아주는 존재로 부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였음을 알게 되고 나 또한 그 길로 인도 받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신자의 변화입니다.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신자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처소

엡 2:21-22

주일오후

(9.7일 설교 31강)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교회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때문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며 교회의 실제적인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타난 교회론만 잘 이해한다 해도 대개의 현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됨이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 있음을 충분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이 증거 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보다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 가는 교회에 더 깊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사도가 증거 하는 교회는 우리의 흥미를 끌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의 번성을 말하지 않고,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를 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족이 될 만한 교회됨의 기준을 따로 세워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고 세워 가시는 교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게 되면 사람의 만족이 될 만한 교회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리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졌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본문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관

계에 있는 것을 교회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어 가시는 것이 교회라면 짓고자 하시는 무엇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22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세워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자 하시는 목적 아래 나에 대한 나의 뜻과 목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가겠다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며 자신의 포부와 뜻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와 연관된 모든 것이 나를 살만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도구로 주어짐을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음을 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 놓기를 거부하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부르시고 신자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는 관심 두지 않고 다만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단단하게 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눅 9:5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거하실 집 한 채도 없는 가난뱅이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상에 처소를 두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으로 만족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으로 부름 받은 신자 역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 세상의 처소 문제는 걱정거리로 작용할 수 없어야 합니다. 처소의 크고 작음이 문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의 신자가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교회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를 보면 교회의 외적 크기에 많이 민감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더 크고 멋있고 자랑거리가 될 만한 예배당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빛을 내어 예배당을 짓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 되는 것으로 포장하지만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필요한 것일까요?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21절에서 말하는 성전이 되어 가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구약적 용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처소에 대해 먼저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출 15:1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주께

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대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천국을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소를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결국 거룩한 처소를 눈에 보이는 어떤 공간과 장소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배당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인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거룩한 처소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처소로 인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기준은 거룩입니다.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를 구분하여 거룩하지 않은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은 인간에게는 해당되지 않은 영역입니다. 무엇으로도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스스로를 거룩한 존재로 여겼던 이스라엘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처럼 거룩하지 않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겔 37: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화목의 관계에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실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성취될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화평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으로 주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신자는 상한 심령으로 주를 부르며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배워야 할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참된 제사가 있는 성전으로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보다 이방민족처럼 부강하고 힘 있는 나라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처소는 거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러면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씩 거룩해져 간다는 뜻일까요? 신자의 거룩은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함께 하는 거룩한 백성을 거룩한 백성답게 다스리며 붙들어 가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이기에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한 교회로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존재하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생명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긍휼과 용서하심이 아니면 주의 거룩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기에 생명이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처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노아

창 6:9-22

수요일

(9.10일 설교 21강)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다라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과 하나님께로 부터 주어진 믿음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을 참된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나는 믿음이 없다' 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게 되면 드러난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면서 믿음과는 상관없이 내 길로만 가고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엡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스스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믿음에 대한 감사함이 없게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선물로 받았으니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믿음이 그러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로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실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17절에 보면 홍수를 땅에 일으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겠다고 하십니다. 심판의 이유는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11절). 세상은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언 아래 있게 되며 하나님의 이 선언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을 골라 피한다고 해도 쓸데없는 일일 뿐이고, 신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 온갖 선을 다 행한다고 해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선언 아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18-20절의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가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심판 속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 그 생명이 보존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수로 천하가 멸절을 당할 때 노아와 그 가족이 구출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노아의 믿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믿음에 의하면 노아의 믿음이 부각됩니다. 9절에서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말한 것처럼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하다가 인정될 만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구원되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아의 믿음이 좋아서 구원된 것이 사실이라면 언약은 왜 세우시는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구원 될 수밖에 없는 굳이 언약을 세워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노아와 함께 그 가족도 구원하기 위해 언약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아와 노아 가족의 구원의 통로가 각기 다르다는 의미가 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 가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원 받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8절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 뒤에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노아를 통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노아가 부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는 것입니까?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이 온통 죄로 가득하고 사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한 자로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김 받게 된 것은 노아 스스로의 행실에 의한 평가가 아니란 것입니다.

노아가 아무리 행실이 착하다 해도 행실로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흠 없는 완전한 행실을 나타낼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것일까요? 노아 당시의 세상은 죄로 가득했고 그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계획이 악했다는 것은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기를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부패입니다. 피조물로서 계획의 중심에 창조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노아를 의인,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노아가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라 살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 믿음이며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의와 완전함

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준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준행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홍수를 일으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어 들어가라 그러면 너와 네 가족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겠다’는 명령은 누가 들어도 준행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마치 일어난 것처럼 여기며 방주를 만든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광신자와 같은 행동으로 치부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말씀한 방주의 크기는 대략 길이 135미터, 폭 23미터, 높이 13미터입니다. 이것은 혼자 만들 수 있는 크기가 아닙니다. 설사 방주를 만들었다고 해도 심판이 없으면 모든 노력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세상에 통용되는 믿음과 상식으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들은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 의인이며 완전한 자로 여김 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아의 의와 완전함은 노아 개인의 믿음을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이 있는 의인과 완전함의 길로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것을 은혜를 입으면 죄를 범하지 않고 전혀 흠 없는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의와 완전함은 앞서 말한 대로 세상 풍조를 좇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세상을 좇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생명에 뜻을 두고 소망하게 되어 진다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심판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이기에 인간의 어떤 선행도 의로 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강조해서 증거하고 있음을 주지해야 합니다. 때문에 은혜 앞에서 ‘나는 믿음이 있다’는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든 것은 분명 칭찬 받을 믿음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지 백년이 넘도록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심판이 있기는 하는 것인가?’라는 의심이 있을 것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도 가볍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처럼 자기 일에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의 현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집중하여 생각해야 합니다.

말씀을 준행하는 노아의 삶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해될 리가 없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멸한다는 것부터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에게 노아는 미련한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준행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노아였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말씀에 준행하는 삶을 위해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가신 고난의 길에도 준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 됨을 원하시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는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칼럼

이단 101 - 트레스디아스(TD)

여기서 우리는 트레스디아스가 근거로 삼고 있는 꾸르실로 운동의 뿌리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꾸르실로 운동의 뿌리는 로마 가톨릭 조직의 예수회(제수이트, Jesuit)인데, 가톨릭 예수회는 개혁신교도(프로테스탄트)들이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지는 것을 대항하여 가톨릭을 세계적으로 포교하는데 힘쓰기 위해 16세기 중반 교황 바오로 3세가 이그나티우스 로올라로 하여금 창설하게 한 것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예수회는 가톨릭 수도회중 가장 많은 신도와 사제수를 자랑하는 최대의 본파인데 제수이트, 또는 한자음을 따서 '야소회(교)'로도 불린다. '영성훈련'으로 단련한 초대 회원들은 16세기 가톨릭의 부패와 타락 등 위기 속에 탄생해 개신교에 맞서 세를 확장해 나갔으며 1540년에 로마 교황청의 정식 인가를 받게 된다. 제266대 교황에 선출된 프란치스코 1세가 예수회의 소속으로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기도 하다. 포교와 신념을 위해 목숨도 버리는 영화 '미션' 속 주인공도 예수회 소속으로 그려졌고, 우리나라의 서강대학교도 예수회가 세웠으며 광주가를 립대학교, 수원외대 '말씀의 집' 등도 예수회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회를 창설한 로올라는 신비주의적인 30일 영성훈련을 고안했는데 호흡수련과 관상을 포함하는 그의 수련법은 신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신비주의의 수련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 그의 30일 영성훈련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하여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사흘로 압축한 것이 3일(영성훈련) 운동인 것이다. 결국 트레스디아스는 예수회의 로올라에게서 물려받은 신비주의 가톨릭의 영성훈련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트레스디아스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벌어지는 체험집회라는 점이다. 참가자가 밝히지 않으면 트레스디아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구조는 비성경

적인 은사주의의 비밀 통로로 활용되기에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트레스디아스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국 트레스디아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레마선교회의 이명범은 김기동과 동역 했던 베뢰아 출신이며, 또 다른 전파자 김광신 목사 역시 베뢰아 출신이자 피타와 그녀로 임명된 신사도 운동가라는 점이다. 이것을 보면 트레스디아스는 알파 코스의 주말수양회를 포함하여 신사도운동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모두 말씀보다는 신비체험을 증진하는 면에서 서로 비슷한 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실시되는 이들 프로그램 중에는 묵상기도, 성찬식, 편지 보내기, 선물 보내기, 특별기도회, 세족식, 회개한 죄목 태우기, 쫓길 걷기, 사랑의 포옹, 아침 만남의 시간, 침묵훈련, 개인 고백의 시간, 간증 시간 등 실로 다양하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 알 수 없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행한다는 것만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간의 성향이 변할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들 프로그램에는 말씀이 없다. 즉 복음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도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자신의 죄를 보면서 철저하게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전적 무능력자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없다. 오로지 성령 체험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야 말로 빈야드 적이고 신사도적임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영성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하면 체험하지 못했던 것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깊은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말로 말씀을 부인하고 성령의 참된 역사를 왜곡하게 되는 것임을 주지해야 하는 것이다.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 11:00
 주일오후 14:00
 유년부 13:00
 중등부 13:00
 수요일 19:30
 금요일도 19:30
 새벽기도 6: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오전예배

11:00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33장 다같이
교독문	32(사71편) 다같이
기도	조규현 장로
찬송	285장 다같이
성경봉독	눅 24:36-43 인도자
설교	신윤식 목사

부활의 예수님과 제자들(127장)

기도	설교자
찬송	545장 다같이
교회소식	이영민 장로
*찬송	3장 다같이
*축도	설교자

다음 주일 기도: 이영민 장로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오후예배

14:00

인도: 신윤식 목사

목상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251장 다같이
기도	박영선 집사
찬송	458장 다같이
성경봉독	엡 3:5-6 인도자
특송	황경영 권사
설교	신윤식 목사

복음으로 말미암아(34장)

기도	설교자
찬송	310장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다음 주일 기도: 김현동 집사

수요일예배

19:30

인도: 신윤식 목사

창세기(24장)

교회소식 & 1분 묵상

1. 우리는 매일의 삶이 새롭다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새롭다기보다는 그날이 그날이라는 생각이 더 강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상생활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배는 6일 동안의 일상생활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경험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경험이 여러분께 함께 하여 기쁨과 평강으로 이끌림 받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묵사를 외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표현한다. 나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사실 외적으로 보면 항상 교인들에게 둘러싸여 대접받고, 동료 목사들과 어울려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들이 많은데 외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외로운 영혼의 소유자라는 것은 함께 어울리는 친구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외로움 같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목사만 외로운 영혼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가 외로운 영혼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진리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 타협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묵사는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 자신이 깨닫고 증거하는 말씀이 과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충분한가를 살피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 그 때문에 묵사는 설교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다.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차단한 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믿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외로운 길에 서 있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신자의 길이다.